

“만두속에 맛좋은 해남부추가 ‘가득’”

해남군, 권역별 특화작목 부추 본격 출하 향기 좋고 당도 ↑...CJ프레시웨이와 계약

해남군이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시설부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해남 겨울부추는 잎이 넓어 쉽게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향기가 좋고 당도가 높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을 체결해 만두소용으로 매달 25~28톤 가량을 출하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정진호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북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 20ha의 면적에서 시설부추를 재배, 연간 36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추는 연중 수확이 가능한 작목이지만 해남 겨울부추는 고품질 유지를 위해 겨울철에만 수확,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출하하고 있다.

부추는 한번 파종하면 3~4년 연속 재배가 가능하고 겨울철 기준 40일이면 재수확할 수 있어 연간 4~5차례의 겨울 부추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별도의 가온이 필요없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돼 3.3㎡당 2만원의 조수익을 올리며 겨울배추를 대체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농가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해남 시설부추는 전남농업기술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반시설 구축과 공동집하·선별장을 조성해 시설부추 연중생산 체계 구축과 규격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남 북일면 일대 남부권은 해

양성 기후의 온화한 온도조건과 일조량이 풍부한 기상조건으로 군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통해 부추와 무화과 등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목포시,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120개소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50% 지원

목포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목포시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관내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31개 단지 경비실 120개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120개소에 설치비용 5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노

후아파트에 매년 예산 2억3500만원을 투입해 인도.보안등 유지보수,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수목관리 및 부산물 처리 등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63%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관리, 수목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앞으로도 경비원 근무환경과 노후아파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곡성군, 여성이장과 인구감소 대책 논의

여성이장 간담회 개최...“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

곡성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풍마루에서 여성이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 군정운영 참여에 감사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여성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정립 여성이장단 회장의 인사말, 주요 군정 홍보사항 안내, 군수와의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농어촌 지자체의 공통적인 관심거리인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유근기 군수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프로그램 향상 등 농촌교육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권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여성이장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정립 회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21명 여성 이장들이 한 마음으로 군정 운영에 적극 동참해 해결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인구감소가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9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곡성 인구늘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곡성사이드’를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드’는 ‘사이좋은 이웃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중의적 명칭으로 곡성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엮을 수 있다.

곡성군은 여성 이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친목도모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풀이 아랄 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의 자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 전국 최대 메타세쿼이아로드 만든다

담양군과 순창군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형사업에 국비 23억원을 포함한 총 43억원을 확보한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간에 대해 단절된 메타세쿼이아 길을 연결해 전국 관광평생로 거둬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담양군은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 후문매포소 부근에 테마형

총 43억 확보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과 간담회 갖고 지속적 상호협력 약속해

최근 최형식 담양군수와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설되는 국도 24호선에 담양읍 학동리 금월교에서부터 순창까지 식재되지 않은

공원, 관광미디어홍보터널, 신설국도24호선 메타세쿼이아 등 2020년까지 3년간 총 21억원을 투입해 메타세쿼이아와 연계되는 명품 메타세쿼이아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인삼재배시설 폭설피해 예방 홍보 주력

영암군은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겨울철 국지성 폭설에 대비해 인삼재배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인삼 재배농가가 겨울철 수차례 폭설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여 관내 인삼재배 농가에 인삼 재배시설에 대한 폭설피해 경감 대책요령 서한문을 발송하고 인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설피해는 월동기인 12월~이듬해 2월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월동전 대비와 함께 농가 스스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차광막을 걷어 폭설에 대비하고 해가림시설은 눈이 쌓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몇 칸씩 건너 차광막을 찢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서은홍 기자

추위 속 강진연근 수확유통 활기 넘쳐

강진군이 성전면 금당리 일원에서 연근 수확이 한창이다. 최근 고미지 법안 직원들은 추위 속에서 강진연근 수확을 위해 바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의 연근 재배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9.1ha의 면적을 확보하며 수도권 등에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마을에그린공동선별장에서 유통 출하된 강진연근은 서울 가락동시장 등에 경매 출하하고 있다. 강진연근 가격은 지난해 농가 수매가 기준 대비 40% 이상 상승하며, 전국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서문시 마트연회회 및 제주도 유통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는 물론, 분산 출하를 통해 강진연근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강진군 연공선출회와 마을에그린공동선별장 소속 농업회사법인 고미지 주식회사는 강진연근 위·수탁 계약 및 유통판매 안정 협약을 체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강진=최재영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확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